“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창원불교 중흥”

창원시 불교총연합신도회 창립법회

7월 25일 창원 컨벤션센터 3층서
초대 회장으로 이상연 불자 취임
지역 대학생 · 청소년 장학금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발전하고, 승가를 외호하며 대승불교 운동을 통한 불국토를 이룩을 목표로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이하 신도회)가 창립됐다.

신도회는 7월 25일 창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창립법회와 이상연 초대 회장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승가단체 창원불교연합회와 재가단체 창원총연합신도회, 두 단체가 함께 불법을 구현하여 불국토 건설을 위해 활동하게 됐다.

신도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상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원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교 저변 확장에 힘쓰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창원 불교계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는 창원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재가 불교단체로서 큰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이 땅의 불국정토 실현을 위해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는 오늘 창립된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 법륜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 쉼 없이 불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정법사 광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은 이를 믿고 따르는 재가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오늘 창립법회를 봉행하는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도 부처님 가르침을 옹호하고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단체가 되기를 부처님 전에 합장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부처님의 가르침 계승 · 발전을 목표로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가 창립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조명래 부시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창원에 불교총연합신도회가 탄생한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통일되는 밑거름이 돼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틀이 될 것이다”며 “창원시도 부처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회장은 김정기 원흥사 신도회장 등 21명의 부회장단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이경태 성균관대 학생 등 4명의 대학생과 김도현 학생 등 2명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총 550만원으로 이상연 회장이 출연했다. 성주사 법안 스님은 신도회 발전기금 500만원, 진해 정암사 상운 스님은 1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김선정 정법사 신도회장의 발원문 낭독과 정법사, 성주사 등 7개 사찰의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2부 행사는 떡 케이크 커팅과 브릴란테 현악 4중주 공연이 펼쳐졌다.

한여름 밤 모기장서 뮤지컬에 취하다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
지역주민 등 700여 명 참석
유럽 · 미국 뮤지컬 선보여

한여름 밤 산사에서 뮤지컬을 감상하는 ‘모기장 음악회’가 열렸다.

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8월 3일 경내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2024 제4회 모기장영화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천년의 빛 나를 비추다’라는 주제의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특별 초청 예약 500명까지 총 7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화엄사는 이번 음악회를 지역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과 함께한다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구례군민과 마산면 지역주민들, 해외이주민, 구례지역 청소년 학생, 구례군 마산면 의용소방대, 구례군 체육회, 지리산 상가주민 등을 우선 초청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지리산 노고단이 보이고, 푸른 하늘과 숲,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며 “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향기와 빛을 모두에게 드리는 시간이다. 더운 날이지만 지리산 여름밤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산속에 드리우자, 500여 개의 모기장에 반딧불이 하나둘씩 밝혀지며 음악회가 시작됐다.

음악회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콘(KoN)의 사회와 연주로 시작됐다. 특히 이날 모기장 음악회는 뮤지컬 영화음악 감상이 주제인 만큼, 영국, 유럽, 미국의 뮤지컬 대표작들의 노래가 이어졌다.

첫 음악은 영국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연주와 노래와 함께 유럽 뮤지컬 ‘엘리자벳’을 뮤지컬 배우 박혜민이 노래했다. 이어 미국 뮤지컬 ‘지킬엔 하이드’,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켄슈타인’, ‘파가니니’ 등에서 나온 음악을 콘, 윤형렬의 연주와 노래로 여름밤 화엄사를 찾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향일암 “영양식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7월 26일 여수 성산공원서
복지단체 보문복지회 함께
지역 어르신 500여 명 초청

무더운 여름과 길어지는 장마에 지친 어르신들 건강을 돌보기 위해 효도 잔치가 열렸다.

향일암과 여수 최대 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7월 26일 여수 성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지역 어르신 500명을 초청해 여름 보양식을 대접하는 ‘향일암·보문복지회가 함께하는 여름철 독거노인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펼쳤다.〈사진〉

연규 스님과 봉사자들은 보양식 500인분과 함께 후식인 수박을 직접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향일암 신도회도 어르신들에게 라면을 선물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을 비롯해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김미리 여사(주철현 국회의원 배우자)와 보문복지회 산하 17개 시설기관장 및 봉사자, 향일암 신도 등이 함께했다.

연규 스님은 “다가가는 복지, 편리한 복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마음으로 향일암과 보문복지회 17개 시설기관에서 정성을 다해 마련했다”며 “어르신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웃고 즐기면서 나눔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나눔 잔치에는 가수 법은 스님과 전남음악인봉사단의 김정훈, 라태양, 최상용, 서정숙 가수 등의 노래공연이 진행되어 흥겨움을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회 발원해 올바른 인연 쌓아가길”

청주여자교도소 합동천도재
8월 1일 교정협 주관으로



수용자들의 인연 영가를 천도하고 올바른 인연을 맺는 합동천도재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열렸다.

청주여자교도소 교정협의회(소장 박정민)과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혜오 스님, 문경 만선사 주지) 주관한 수용자 합동천도재가 8월 1일 봉행됐다.〈사진〉

코로나19로 5년 만에 거행된 천도재에는 130여 명이 동참했다.

혜오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인연 영가를 천도하고 스스로 참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한다”며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보탬이 되고 올바른 인연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불교분과위원회는 청주여자교도소 전체 수용자에게 백설기와 아이스크림을 각각 1000개씩 기증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동구 사찰들, 동구청에 팥빙수 선물

동구청 직원 800명 대상
“지역 공무원 노고 격려”



무더운 여름 지역 행정에 노력하는 광주동구청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광주 동구지역 사찰들이 마음을 모아 시원한 팥빙수를 전달했다.

광주 동구지역 7개 사찰은 (사)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7월 30일 광주동구청(청장 임택)을 방문해 팥빙수 800인분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팥빙수 전달에는 동구청불자회(회장 이안수)도 힘을 보탰다.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동구불교협의회장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 만경사 주지 시공 스님, 문빈정사 주지 법공 스님, 선덕사 주지 담준 스님,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과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의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더운 여름 열린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금은 천진불 세상

백양사, 어린이 명상캠프 ‘연꽃아이’ 개최

8월 2~4일, 경내 일원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가 8월 2~4일 3일간 ‘2024년 백양사 어린이·청소년 명상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연꽃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도법사 지인 스님(포교국장), 영조·혜명·아도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 77명, 지도교사 30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했다.

명상캠프 첫날 입재식에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여러분 모두가 가장 귀중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명상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나도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

7월 27~29일 · 8월2~4일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7~28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엄마, 아빠 나도 쉬고 싶다’를 주제로 금산사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금산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무더위를 식히고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 품에서 잠시 벗어나는 진정한 휴식을 제공했다. 해당 템플스테이에는 매회 △미국 △세종 △전주 △광주 △성남 △군산 △익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2박 3일간 108염주 꿰기, 전통 한지등 만들기, 모악산 숲체험 놀이, 워터슬라이드 물놀이, 붓다볼 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동원사, 어린이 여름캠프 성료

초등생 30여 명 참여해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뛰어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여름캠프가 개최됐다.〈사진〉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는 7월 26~27일 이틀간 경내에서 ‘제3차 동원사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여름캠프는 지역 초등학교 방학에 맞춰 시작됐다. 입재식에는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주지 지장 스님, 지도교사를 비롯해 지역 초등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용관 학생(계림초 6)은 “작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 올해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됐다”며 “올해에도 열심히 놀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고 기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남해지역 초등학생 22명 동참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스님)가 7월 27일 남해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열었다.

경주 향림사 법명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는 22명의 어린이가 동참해 산사에서 색다른 체험을 했다.〈사진〉

이들은 △염주 만들기 △전래놀이 △숲 놀이 △마음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점심 공양으로는 절에서 손수 만든 짜장면이 제공됐다.

용문사는 오는 8월 24일 2차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010)8628-4425 성낙두 경남지사장

“여름날 특별한 추억 각원사서 쌓아요”

7월 27~28일 양일간 경내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며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각원사에 모였다.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7월 27~28일 양일간 경내 영산전(나한전)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 참여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80여 명은 기초예절을 배우고 망원경으로 태양 관찰, 연꽃과 부채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원 스님은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며 “신나고 재밌는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